

화순전남대병원, NGO 월드비전에 후원금 전달

화순전남대병원이 경제 위기에 놓인 지역 아동들을 돕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과 정병원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2023년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사회복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위기 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아동을 위한 의료비, 월세 미납 등으로 주거 불



안에 처한 가정을 위한 주거비, 공공금 채납이나 냉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생계비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GGM,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 데이 개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패밀리 데이'는 임직원 가족이 부모·자녀의 일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회사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다. 임직원 가족 230여명은 임직원과 가족들은 조립·차체 공장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캐스퍼 전기차를 시승했다. 윤봉현 GGM 대표는 "회사를 찾아 주신 가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GGM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북구배구협 최선미 회장 취임



광주시 북구배구협회는 최선미<사진> 회장이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협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북구종합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10회 협회장배 배구대회도 진행됐다. 최선미 회장은 "항후 지역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 주민 간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배구협회는 2000년 북구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생활체육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김승휘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

제37대 재광해남향우회장 취임



변호사 김승휘<사진>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가 제37대 재광해남향우회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재광해남향우회는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전진숙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향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신임회장은 "조직을 복원하고 흩어진 소모임들을 결집시켜 재광해남향우회를 13만 향우들의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겠다"며 "전임 회장단, 읍면 회장단, 여성향우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산악회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해 향우회가 향우들의 일상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서구자원봉사센터장을 맡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도 열려 김승휘 회장이 500만 원, 여성향우회가 3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동수 광주세관장, 화순 화장품 수출기업 방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21일 화순군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있는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법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공장을 찾아 세관의 수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의 애로·건의 사항을 들은 뒤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남부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남부대학교(총장 조준범)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광주지역 10개 대학과 함께 광주드림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 드림패스는 지역 산업 수요기반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및 지역정주기반 마련, 청년창업프로

그램공동운영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체결한 RISE 기반 지역주력산업 육성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전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보석아내 건강 수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주니토니 이야기(재)			
[11]	00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대통령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슈퍼트론 2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빠뽀 좋아좋아 55 2시 뉴스 외전	00 김원희의 원더랜드(재)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이맘때(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헛!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도시락 스페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35 시사타점! 따따따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여왕의 집	05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공부와 놀부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생이몽2 너는 내 운명		
[11]	00 KBS 뉴스라인W 40 우리 집 금슬아지(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모킹 건(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3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MBC 뉴스 25 5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나의 버킷리스트 1부 시간을 걷다, 인천〉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로보카 폴리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슈퍼왕스 슈퍼콤보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8:00 당동맹 당동맹 08:50 영유아 클래스 e 09:20 자이언트 팽TV 09:40 PD로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포토제닉 아프리카 -심장이 두근두근! 빅토리아폭포〉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14:30 클래스 e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불꽃 16:10 당동맹 당동맹 17:00 페파 피그 17:10 드라마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17:40 도래미 프렌즈 쇼츠
17:50 자이언트 팽TV(재) 18:10 EBS 뉴스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9:20 고향민국 19:50 왔다 내 손주 20:40 세계테마기행 〈맛있는 튀르키예4- 케밥의 계절〉 21:35 한국기행 〈4000회 특집 눈부시게 아름다운 1부 맛〉 21:55 PD로그 22:45 EBS 다큐프라임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클래스 e(재) 24:20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음 4월 29일 乙未) ☎ 010-9790-8237
	36년생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48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닥이 잡히겠다. 60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72년생 운로가 갑자기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84년생 전문성의 확보만이 성사로 이끄는 구간이 된다. 96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14, 69
	37년생 서행하면 득이요, 급행하면 반드시 실이로다. 49년생 수시로 변화무쌍한 형세라 할 수 있으니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라. 61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73년생 결정적인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않음이 이익이다. 85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97년생 간단히 하라. 행운의 숫자 : 48, 75
	38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0년생 활력을 띠면서 연쇄적인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다. 62년생 기저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74년생 흐트러진다면 회기가 클 수밖에 없다. 86년생 결과적으로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98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겠다. 행운의 숫자 : 07, 59
	39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개하라. 51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무난하게 추진되는 운로에 놓여 있다. 75년생 파급 효과까지 예상하고 판단해야겠다. 87년생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손실이 없을 것이다. 99년생 다수인과 만남의 기쁨이 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91
	40년생 점점 더 경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52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수고스러울 것이다. 64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룰 것이다. 76년생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절실한 때이다. 88년생 기본에 충실히 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00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행운의 숫자 : 22, 96
	41년생 이타심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길하다. 53년생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는 법이다. 65년생 느긋으로만 판단하여 건너졌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77년생 참으로 신중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89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돌 뿐이다. 01년생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34, 90

	42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54년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66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만해야 빛을 보게 된다. 78년생 껍을 같이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90년생 현태가 매우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02년생 과감히 개선하라. 행운의 숫자 : 38, 61
	43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5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67년생 조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상을 예견한 것이다. 79년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어도 지리멸렬하다면 미련을 버리도록 하라. 91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 버릴 것이다. 03년생 적절한 방안을 분명히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0, 54
	44년생 기존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56년생 바야흐로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68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80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92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04년생 관리를 잘 해 두자. 행운의 숫자 : 49, 99
	45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57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69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81년생 어떻게 행하느냐는 방법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93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05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취보자. 행운의 숫자 : 32, 82
	46년생 힘들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58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70년생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니 개의치 말라. 82년생 생애따함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94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채 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06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행운의 숫자 : 44, 84
	47년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59년생 즐겨 쓰는 방법대로 이행해야 실수하지 않느니라. 71년생 오매불망으로 하시고대하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83년생 평상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95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라. 07년생 아무리 살펴봐도 슬모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68